

일맥문화재단 2억 기증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일맥문화재단(이사장=황수로)은 지난 15일 본교에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태창그룹 설립자인 황태성씨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일맥문화재단은 이번 기증 외에도 2001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 본교생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 9.8% 인상

기능직원 숙련수당 지급

직원노조(위원장=백경선)는 지난 12일 임금인상과 관련해 학교당국과 2차 교섭을 갖고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 198명 중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9.8% 인상을 확정했다. 임금 인상분은 5월부터 반영되며 6·7등급 기능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한 기능숙련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문화의 꽃’ 대동제 개막

서울캠 오늘(22일)부터 3일간

경주캠 내일(23일)부터 4일간

‘천년지기의 희망찾기 00년 묵역 대동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대동제는 △학생회의 활성화와 강화 △민중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관 형성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 총학생회(회장=이승복·반도체학과4)가 주관하는 대동제 중 앙일정을 살펴보면 △22일=정오에 묵역대동제 개막식이 불상 앞에서 △23일=‘백상공연’과 동아리들의 상설 문화 공연이 불상 앞에서 ‘락 페스티벌’ 공연이 만해광장에서 각각 열린다. △24일=폐막식을 만해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총 3부로 나누어 치러지는 폐막식은 1부에서 중구지역 주민과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구 주민 노래자랑’과 ‘꽃다지’의 초청공연이 있으며, 2부에는 단과대학 풍물패 연합의 농민세상 공연극이 있다. 이어 3부에는 경영대 노래패인 ‘산하’와 초대 가수 ‘기스(GIGS)’의 축하공연과 문예단의 율동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대동단결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말

은 학생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주캠 임석 대동제가 ‘일만의 어깨 걸기 하나된 온방골’이라는 기조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치러진다. 지난 2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성우·경영4이하 비대위)는 각 단체 및 차기부, 각 학과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대동제 공청회를 실시해가 기획안 발표 후 건의·질문·답변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규합대 모임에서 외부인보다 학생들의 혜택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

으며, 이후 지난 4일 각 단체 주막(23개), 분식(7개) 추첨을 실시했다. 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23일=해병 의장대 공연, TBC라디오 매직뮤직 공개방송 △24일=동아리 연합회 공연, ROCK 페스티벌, △25일=DKBS 임석가요제, 여성영화제 △26일=스튜어어스 특강, 백상연, 튀는 남자 튀는 여자 산발대회, 단체졸업기 결선(예선 24·25일), DDR댄스 페스티벌 결선(24·25일 예선), 블랙홀과 아프리카 인디밴드 공연 등이다. ▶ 관련기사 2면

지면안내

- 채 계바라를 말한다 7면
- 97년 채 계바라 30주기 행사이후 관심이 높아져 가고있는 채 계바라 열풍을 진단한다. 계바라 평전을 통해 그의 삶과 활동사항을 조명해 본다.
- ‘말’지 기자 간담회 4면
- 벤처창업 경연대회 5면
- 북한문화바로알기 6면



삶의 완전연소 또는 열반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과)

오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축제의 대미는 대개 험차게 타오르는 캠프파이어의 불길로 장식된다. 비록 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불길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의 연소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런데 캠프파이어에 사용되는 나무의 성질에 따라 그 불길의 모습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무가 잘 건조되지 않았거나 나무에 흙과 모래 등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면 그 불길은 불완전 연소로 그늘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때로는 악취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잘 마르고 조그만 이물질도 없이 깨끗하며 적당한 바닷물이 붙어 산소 공급이 잘 된다면, 그 나무는 그늘음 하나 없이 연기 하나 없이 또한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완전연소해 갈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온갖 고통과 번뇌로 그늘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삶을 불완전연소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드넓은 자유와 드넓은 평화로 삶을 완전연소시키기도 한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열반은 바로 이러한 완전연소의 삶에 다름 아니다.

열반은 흔히 ‘불길이 꺼진 상태’로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생명의 불길이 꺼진 상태 또는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생명의 불길이 꺼진 상태가 아니라, 탐진치의 불길 다시 말해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바람 잔 숲에 새들이 날고 불길 고요한 호수 위에 물고기들이 뛰노는 것처럼,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꺼짐으로써 우리의 순수한 본래적 생명은 비로소 자유롭게 약동하게 된다.

요컨대 열반은 빛바랜 삶이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와 평정,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푸르른 삶이다. 불교가 삶의 예술이라면, 열반은 예술 그 자체임과 동시에 그 예술이 빛바랜 ‘지혜와 자비의 삶’ 또는 ‘자유·평정·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열반은 결코 삶의 소멸이 아닌 삶의 질에 대한 언명으로서 정화되고 승화된 ‘삶의 완전연소’인 것이다.

온라인 강의평가 시행

성적조회와 함께 실시

정확한 통계로 강의 개선 기여

그동안 중강대 설문조사형식으로 시행됐던 강의평가제도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기로 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속에 신뢰도 높은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교수의 ‘강의진행’과 학생의 ‘학업성취’에 관한 14문항으로서 문항 수와 내용이 이전의 설문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전에 실시하던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5개의 응답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 추가되고 학생이 직접 써야하는 건의내용 항목이 신설돼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점으로는 집계 수작업으로 이뤄졌던 이전과는 달리 컴퓨터로 통계작업이 이루어져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고 교양강좌를 비롯해 한학기 동안 개설된 모든 강좌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해 전체적인 강의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 실시되는 강의평가는 실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적조회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다수의 학생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

에서 긍정적으로 기대된다. 반면, 평가 항목이 타당성과 신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이뤄졌으나 평가문항들이 모든 과목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과와 과목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과제도 남겨두고 있다.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 박근서 과장은 “앞으로 실험실습강좌 평가를 차별화 시키는 등 강좌별로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강좌에 맞는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강의평가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강의평가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를 등 평가결과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고 평가가 공개될 경우 강의평가가 자칫 학생들의 인기투표로 전락되어 의도하지 않았던 교수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강의평가제도는 오는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평가로 강의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 본다.

김현중 기자 roket123@dgu.ac.kr



서울캠 창업보육센터 개소식이 중구청장등 학내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동국관에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벤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국인에게 벤처의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관련기사 5면

박영석, 마칼루봉 등정

히말라야 14좌 고봉 완등 눈앞에

본교 박영석(동국산악회, 체고 91줄)등원이 이끄는 ‘2000 동국 마칼루·시사광마 원정대’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5일 세계 5번째 고봉인 마칼루(8463m) 등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박영석은 지난해 5월 강철훈가 등정 이후 지난 15일 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정상 중 11좌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원정대는 귀국하지 않고 남은 3개 고봉 중 시사광마봉(8046m)에 도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원정대는 히말라야 고봉 14좌 완등 가운데 K2와 브로드피크 2개

의 고봉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관련해 대외협력처(처장=한보광·불교학) 기획사업팀 김진환 계장은 “아시아 최초로 히말라야 고봉 14좌정복에 도전하는 박영석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교대학원 초청특강실시

장례문화와 학술대회개최

불교대학원(원장=이영자·불교학)은 ‘카오스 이론에서 본 불교’라는 제목으로 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용운 박사를

경주캠 총학 재선거

오는 17일 실시

지난 17일 경주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강훈·경영4 이하 중선위)는 투표자 과반수 미달로 무산된 제17대 총학생회선거를 다음달 7일로 확정했다.

중선위 위원은 총대 의장이 지목한 9명과, 비대위 위원이 지목한 9명 등이며, 재선거는 △후보자 등록=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선거=다음달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단, 선거율이 50%미만일시 8일 오후 6시까지 연장) △한의원대 부재자 투표=다음달 2일 서울캠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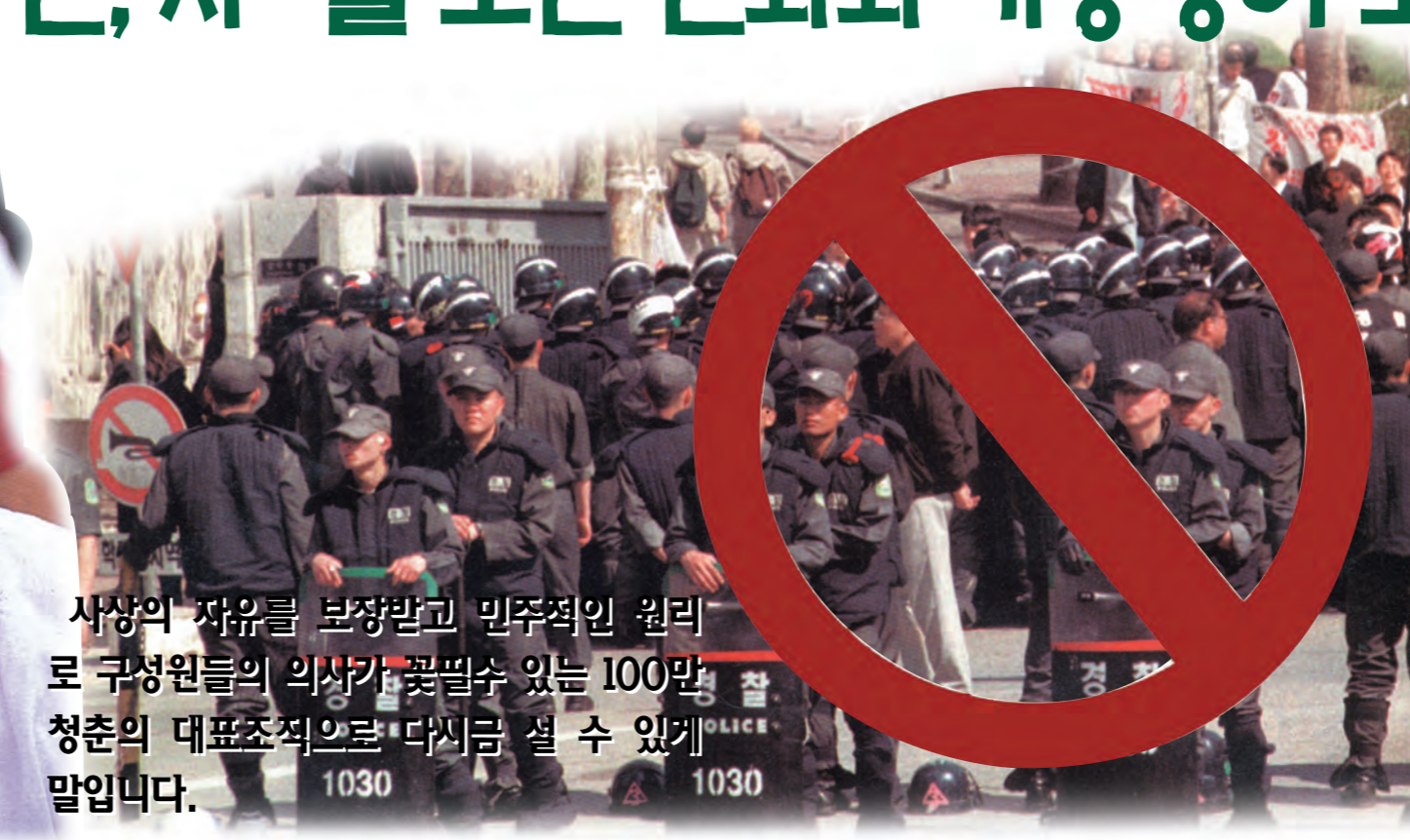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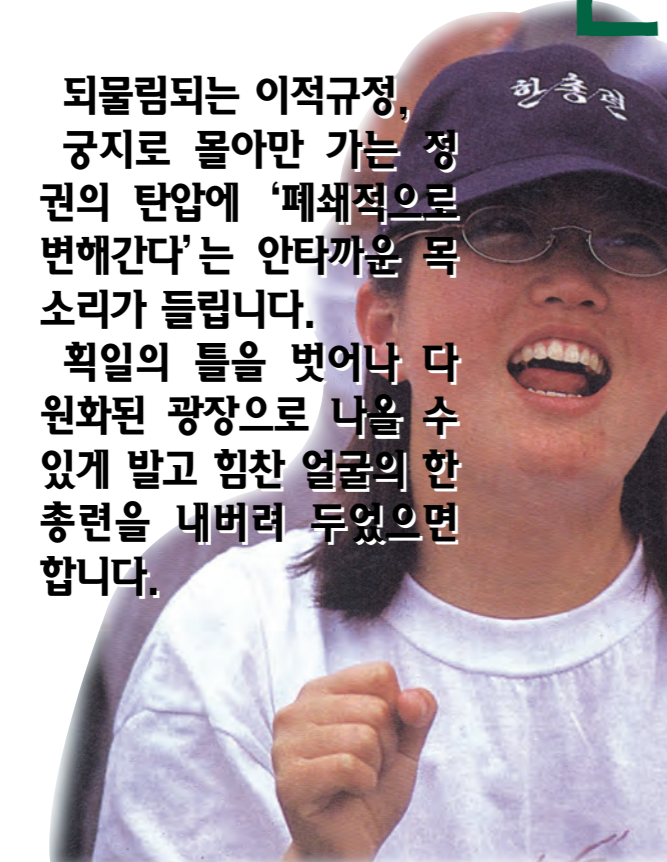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이강훈 중선위원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선위 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동정

▲과노성(국제통상학)=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가

▲박영환(중어중문학)=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남경대학 주최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

한총련, 자~알 보면 변화와 가능성이 보입니다



제8기 한총련 출범식

- 5월26일~28일 부산대학교
- 26일 / 시민학생한마당 전야제
- 27일 / 한총련 박람회 (반미교육관 조국통일관, 민중관, 열사관, 과학성회 1년나기관 한총련역사관) 강연회, 토론회, 영화제, 새내기 할마당, 농농학쿠대학, 민중 연대한마당, 전야대합, 학자추·조통위 출범식
- 한총련 출범전연
- 28일/ 결의대회

되물림되는 이적규정, 궁지로 몰아만 가는 정권의 탄압에 ‘폐쇄적으로 변해간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획일의 틀을 벗어나 다원화된 광장으로 나올 수 있게 받고 힘찬 얼굴의 한총련을 내버려 두었으면 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받고 민주적인 원리로 구성원들의 의사가 꽃필수 있는 100만 청년의 대표조직으로 다시금 설 수 있게 말입니다.

99년 후기 졸업사정 일정 확정

졸업 예정자의 99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일정이 확정됐다.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는 다음달 10일까지 졸업예정자가 취득한 교과목과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검토한 후, 졸업예정자의 졸업학점이 6학점 이상 부족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7월 21일까지 졸업논문 심사결과를 취합하고 29일까지 각 학과별로 최종졸업사정을 실시해 8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졸업사정회의에서 단과대 학장과 학과주임교수가 졸업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금산사 순례 함께 떠나요”

학생회(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복지실은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전라북도 김제군에 위치한 금산사로 ‘명찰순례’를 떠난다. 금산사는 외관상으론 3층이나 내부엔 맨 위층까지 통하는 단층으로 되어 있어 불타 위에 금동의 미륵삼존입상이 거대하게 안치돼 있는 미륵전이 잘 알려져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학생복지실에서 접수하며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우리 문화계의 소중함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교직원 건강진단 실시

본교 교직원들은 오늘(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강남한방병원에서 '2000년도 교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교직원에게는 이미 개별 통지됐으며, 강남한방병원 한·양방 종합검진센터에서 수검할 예정이다.

2년에 1번씩 실시하는 이번 건강진단은 본교 부속병원인 서울지역에 개인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강남한방병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해당

이와 관련해 인사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교직원 모두가 빠짐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금 환불 ... 1학기 등록금 인상폭이 11%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등록금 차액분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졌다. 이에 현금 인출기 앞에는 등록금 환불 확인을 위한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pnew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백승석	이메일 ID	dgpnew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pnews
편집장	김진아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8 팩스 (0561)770-2057

대동제 행사따라 동악을 누빈다

단과대별 다채로운 행사... 헌혈증 모으기, 사랑고백 등 이색적 행사도 마련

불교대

△주점=23-24일, 우체국 옆

문과대

인문학부 △주점=22일, 정오, 명진관 앞 △물풍선 던지기=23일, 명진관 앞 △'불량식품 모여' =24일, 오후 1-3시, 명진관 앞

이과대

△주점=22-23일, 오후 2시, 과학관 명진관 사이 △반도체학과 물풍선 터트리기, 팔방수 판매=동국관 앞 △라면땅(소모임)=22-23일, 통일광장 △운동패 '머슴과 마님' 공연=불상주위

법과대

△법대가요제=22일, 오후 6시, 동국관 앞 △'골든벨을 울려라' =23일, 오후 4시, 나체발

사회과학대

△가요제, 닭은 꿀 찾기, 체육대회 시상식=22일, 나체발 옆 △경찰행정학과 △주점=22-24일 △노래공연과 장기자랑=23-24일 △초코파이 빨리 먹기=22-23일 △물풍선 터트리기=22-23일

경영대

정보관리학과 정보사냥대회=22일 예선, 23일 결선, 동국관 1층 △광고학과 △낚=유유 빨리마시기, 농구 이벤트 △밤=22일-광고 Best5, Worst5 상영, 애니메이션 상영 23일-뮤직비디오 상영, 사랑고백 이벤트 △경영학과 주점 = 22-23일

생명자원과학대

△장기자랑=22일 △학과 축구대회=22-24일

공과대

△주점=23일, 정오, 공과대와 정산대 사이 △줄다리기=22일, 오후 1시, 만

헌혈증 모아 사랑 만들기

따뜻한 온기가 살아숨쉬는 헌혈증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베푼 감동을 전해 주는 건 어떨런지. 학생복지위원회는 대동제 기간동안 학내 인권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해오던 헌혈증 모으기 운동을 계속 벌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엔 모아지는 헌혈증은 백혈병에 걸린 자녀를 둔 본교 목공소 직원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동제를 통해 학생들 모두가 힘의 단결뿐 아니라 마음의 단결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커다란 대동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난 말이야” “나도 말이야”... 스크린 고백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켰던 여섯글자 '선영아 사랑해'. 비록 홍보 전략이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영이라는 인물을 부러워하고 내심 궁금해했다. 대동제가 절정에 이르고 있을 무렵,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내보인다면 그날의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 이러한 행사를 광고학과와 NEO-AD가 오는 23일 밤, 동국관 앞에서 펼치게 된다. 영화 '러브레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를 수없이 묻는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이 또다시 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때 그 시절... 말뚝박기

'동네주인은 골목대장, 학교주인은 학생' 비빔을 가르며 힘껏 달려가 친구의 등허리에 풀썩 올라 앉을 때의 그 쾌감. 20대에 경험하는 '말뚝박기'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예술대 학생회는 오늘(22일) 학술문화관 1층 공터에서 말뚝박기 행사를 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질 이번 행사는 어릴 적 말뚝박기를 하며 놀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놀이문화에 대해 서로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나... 닭은 꿀 찾기

제2의 오지명, 박영규, 김응룡 등이 본교에 나타난다.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오늘(22일) '닭은 꿀 찾기'라는 이름으로 나체발 옆에서 이미테이션 대회를 연다. 60년대 말 엘비스 프레슬리의 머리모양과 창법을 본따 초기의 '오빠부대'를 이끌었던 가수 남진. 오히려 오늘날에는 일반 대중들이 연예인의 외모를 닮거나 흉내를 잘 내는 덕분에 연예인 못지 않게 인기를 얻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 이번 대회는 10명 내외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으며 닭은 꿀 대상자는 △외모 △흉내 △호응도의 기준으로 선별한다.

“동악 곳곳에 골든벨을 울려라”

이주 먼 옛날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던 햄릿이 존재했다면, 오늘날은 '남느냐 떠나느냐'를 고민하는 동국인이 존재한다. 법과대 학생회는 모방송극에서 방영하는 '도전! 골든벨' 프로와 유사한 '골든벨을 울려라' 게임을 오는 23일 나체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인 1조로 참가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행여라도 답이 틀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패자부활전'이 여기에 조금은 안심이 될 듯 싶다.

해광장 △공대키가 선발대회=23일, 오후 1시, 불상 앞 △맛자랑=23일, 오후 3-4시, 원흥관 앞 △영화제 '물란' '인생은 아름다워' =저녁 7시 △식품학과 전시회=23일 정오-저녁 7시 /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가공학실험실 △화학학과 스타크래프트 대회 = 22-24일

정보산업대

△'열쇠고리' 제작, 설문지 조사 △네트워크 게임대회 △줄다리기-학과 대항 △컴퓨터공학과, 신입시스템학과 △주점=22-23일, 오후 1시-저녁 8시

사범대

△주점=23일, 오후 2시, 학림관 앞 △운동회=22일, 오후 3시-저녁 9시, 만해광장 △교육영화=24일, 오전 11시-오후 3시, 교육매체센터 △교육학과 벼룩시장 및 뽕기 장사 = 23-24일 △역사교육학과 바자회=23일, 학림관 앞

예술대

△주점=22-23일, 학술문화관 1층 △말뚝박기 대회=22일 △노컷 영화제=22-23일, 문화예술관 △퍼즐맞추기=22-24일 △광주민주항쟁 사진전시회 =15-24일, 예술극장 벽면

이부대

△영상물 비디오 상영=22-24일, 동국관 4층 로비 △'미리내 버튼만들기' =22-23일, 동국관 4층 △풍물패 '마당' 공연=23일, 오후 6시, 통일광장

학생복지위원회

대동동악장터 △제기차기, 닭싸움, 윷놀이 등 =22일, 중앙도서관 앞

우리웃 뽀내기 한마당

△우리 웃 임기, 책·물품 베품식당 등 =23일, 중앙도서관 앞

호전무대

이상한 상관관계

○...발표수업이 있던 한 강의실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데. 기자재실에서 빌려온 OHP와 슬라이드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거나 아예 작동이 되지 않아 발표는 물론 수업까지 진행할 수 없었다고. 기자재를 구입만 하고 관리가 소홀해 고물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월, "기자재 관리는 학점 관리와 어떤 관계일까?"

학생증 2% 부족

○...학생복지실이 봄비는 이유? 등록금이 확정되면서 학생복지실이 신규학생증 신청을 위해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99년부터 시행되어 온 새학생증 교체 공고에 끔찍하지 않고 구학생증을 고집하던 5백여명의 학생들이 새학생증과 연계된 제일은행동장으로 등록금이 환불된다는 것을 알고 학생증을 만들기 위해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이라고.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월, "등록금 협의가 학생증도 교체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니..."

맷돌 같이 대작전

○...요즘 교내 컴퓨터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마우스로 맷돌(?)을 갈고 있다는데. 알아본즉, 많은 컴퓨터의 마우스 불이 고장나서 사용하는 학생들의 애처로운 노력이 맷돌가는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스크린의 커서는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아 학생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월, "실용용 마우스(?)는 실함에 쓴다지만 학교 마우스는?"

개성시대(?)

○...중앙도서관으로 가면 머리가 흐트러진다? 박물관 옆으로 난 중앙도서관 올라가는 길을 많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가지런했던 머리가 흐트러진다는데. 알아보니 계단으로 가는 길에 걸려있는 플래카드가 지나는 학생들의 머리에 닿는다고. 플래카드를 거는 기동 자체가 너무 낮게 설치된 것도 문제지만 플래카드를 낮게 거는 것도 문제이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월, "너의 헤어스타일은 플래카드에게 물어봐~!"

2000학년도 하계 평생교육

2000학년도 하계 평생교육실습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평생교육과정(구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4학년 재학생
※ 4학년 재학생중 2001년 2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금번 하계방학중 실습을 필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00. 5. 24(수) ~ 5. 26(금)
-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신청서 사범대 교학과 비치)
- 실습기간 : 하계방학중 4주간

사범대학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취지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와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교원업무평가 및 기관평가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함.
- 시행시기 : 2000. 6. 5(월) ~ 6. 23(금)일 중.
- 대상 : 2000학년도 1학기 개설 전체 강좌.
- 응답자격 : 200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 응답요령
가. 본교 홈페이지(www.dgu.ac.kr)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다.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공지사항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히 응답하기 바람.
나.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람.
다.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회를 제한합니다.

교무처

구제도 복수전공 신청

- 지원서 접수기간 : 2000. 5. 24(수) ~ 5. 26
- 접수처 : 교무처 학사지원실
- 지원자격 : 가. '9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이번학기에 7학기 등록하고 2000년 8월 조기졸업신청자 및 2001년 2월 졸업대상자중 신제도 복수전공 신청기회가 없었던 자
나. 전공과정 이수시 취득한 학점이 매학기 18학점 이상이고, 전학년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함. (단, 4학년 2학기는 제외)
- 제출서류 :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 가.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위 수여일자가 동일한 졸업증서를 동시에 수여함
나. 제1전공의 졸업요건 취득후 복수전공이 허가된 자는 해당 복수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서 5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단, 제1전공 이수시 복수전공학과와 부전공을 취득한 자는 21학점이 인정됨.
다. 복수전공자는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5학기 이상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교무처

낙산학사 개장

- 개장기간: 2000. 7. 10 (월) - 8. 18 (금)
- 접수기간: 2000. 6. 14 (수) - 6. 16 (금)
- 사용료 및 접수처

실별 수용인원	20명(학생실)	
사용일	3박4일	
사용관리비	1인당 하루 ₩1,500·(예약금:₩10,000/1실)	
캠퍼스별 배정	서울	경주
	8실	2실
접수처	학생복지실 (☎2260-3047)	학생복지실 (☎70-3049)

- 회차구분

구분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1회	7월10일 - 7월13일	9회	8월3일 - 8월6일
2회	7월13일 - 7월16일	10회	8월6일 - 8월9일
3회	7월16일 - 7월19일	11회	8월9일 - 8월12일
4회	7월19일 - 7월22일	12회	8월12일 - 8월15일
5회	7월22일 - 7월25일	13회	8월15일 - 8월18일
6회	7월25일 - 7월28일		
7회	7월28일 - 7월31일		
8회	7월31일 - 8월3일		
- 유의사항.
가) 본교 재학생 외에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나) 실 배정은 선착 접수순으로 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습니다.
다) 시설사용료 및 예약금은 접수시 학생복지실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취소도구는 개인별 짐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실로 문의 바랍니다.

사무처

인권의식의 선진화를 위하여

논단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눈을 돌리자

모든 것이 국가 중심으로 사고되고 집행되었던 권위주의체제가 종식되고 민간 민선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의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인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반체제’적이며 ‘불온’, ‘불순’한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이었다. 험난한 경로를 거쳐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 통제와 양육성이 널리 공유되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존중이라는 구호는 많이 들려오지만 그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권존중실현에 필요한 조건들

인권존중이 현실화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계속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활동을 감시·처벌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법률이 개폐되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폭과 깊이 모두에서 한 단계 고양되어

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머지 않은 장래에 매듭이 지워지리라 예상되기에 이 글에서는 세 번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힘없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전환 시급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인권’을 하면 ‘정치범’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치범’의 경우는 감옥에서나 출소 후 사회에서도 무시받지 않는 힘과 발언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현 시기가 진정한 인권이 필요한 사람은 ‘소수자’, 즉 집단적 힘도 정치적 대변자도 없으면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약자일 것이다. 이 중 몇몇 소수자 집단에 대한 우리의 인식전환은 시급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인들은 “유엔 피구급차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 하에 처해있지만 일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죄를 지었으니 혹독하게 당해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관념이 시민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

으로서 갖는 본질적 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수형시설도 감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인을 ‘사회복귀’시키기 위한 체제와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재범율은 계속 증가하여 일반 시민의 안전은 계속 위태로워지는 부메랑 효과가 계속될 것이다.

둘째 “국제화” 시대는 필연적으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는데, 동남아 출신 노동자의 한국 유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수모와 피해는 이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우리는 일본인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타 인종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인권을 운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인’ 대 ‘비정상인’ 식의 개념구별에서 드러나듯이 많은 이들이 장애인을 열등하며 부끄러운 존재,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보면 95%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다. 요컨대 우리는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조국 법과대 법학과 교수

인권수준의 선진화 필요

일국 차원의 관행을 세계적 차원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정치구화’의 요청은 인권의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한국의 특수한 조건을 이유로 보편화된 인권의 요청을 외면, 무시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는 우리의 현대사가 잘 보여주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선진화’는 인권수준의 선진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며, 인권수준은 그 사회의 ‘다수자’의 상태가 아니라 ‘소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단순히 동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들이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바람직한 강의평가를 위하여

강의평가방법이 달라졌다. 강의실에서 인터넷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온라인 상으로 성적확인을 하기전 의무적으로 강의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다수의 참여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강의의 다양성을 고려한 ‘강의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무리수를 보이고 있다.

우선, 강의 평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강의평가처럼 형식적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선된 강의평가 방법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교수 수업방식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고 있어 강의 전반에 대한 평가가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강의 평가는 크게 ‘강의 진행’과 ‘학습성취’로 나눌 수 있는데, ‘강의진행’은 교수 수업방식에 대한 평가이고 ‘학습성취’는 학생 개인 학업에 대한 평가이다. 강의 수준이나 분위기 등 강의 질에 대한 평가는 지금의 설문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각 교과목과 강좌별 특성에 맞는 강의 평가가 아니라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 양적으로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 외에 ‘형식적’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에 다가가지는 못한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지금의 평가 항목으로는 ‘교수의 강의 내용은 좋았으나 수강 인원이 너무 많아 강의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하면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강의평가는 그야말로 ‘수업’만 평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강의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강인원과 수업 분위기 등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온라인 강의평가는 한 학기 학사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높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각 교과목과 강좌별 특성에 고려해 평가 기준과 항목, 내용이 정해져서 과목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평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와 중선위의 자세

경주캠 17대 총학생회 3차 재선거일이 확정됐다.

지난 1.2차 선거를 치르며 한바탕 흥여를 앓고 난 후 총학 재선거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오다 지난 16일 중선위가 꾸러졌다. 이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바라던 바이며 그래서 더더욱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이번 총학생선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지난 1차 선거의 경우 매년 지적되어온 학생 참여 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투표율이 문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치러진 2차 선거의 경우는 입학부자 등록금 납부 여부를 둘러싼 후보자 자질 논란과 중선위의 태도가 불분명했던 것은 총학의 필요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적인 총학 미구성의 책임은 중선위에 있다. 지난 2차 재선거에서는 중선위원들의 직위를 이용한 낙선운동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중선위 내에서 해소되긴 했으나 이와 같은 의혹이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제기 됐다는 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중선위는 올바른 선거의 진행 책무가 주어진 기구이다. 그 구성원들이 공정한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지 않는다면 지난 선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중선위는 그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태대학 생협들과 공동 구매를 하면서 구매가격을 인하하고, 교내 취급물품의 면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복지 문제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다. “독립법인화”를 향한 생협의 빠른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박지영 기자 starfeast@hanmail.net

생협 독립법인화 추진

복지향상의 출발 ‘독립법인화’

독자적 사업자 등록 추진... ‘복지경영’ 과제

지난 98년 12월 소비자생활협동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현재 임의단체인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독립법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들의 후생복지 향상 등 학내생활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해 설립된 생협은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수익 사업을 하며, 그 이익을 수익배당금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공공립대학교의 생협은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대학재단이사장의 명의를 빌려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생협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협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납세 문제와 직원고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왔다.

지난 99년 동아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

이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추징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재단이사장의 명의로 학내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인고를 하지 않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생협이 탈세 한 것으로 되어 일어난 일이었다.

또한 최근 고용 유연화 정책때문에 고용조건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복지 문제로 학교와 충분히 대립할 소지가 있는 현 상황에서 생협직원의 고용주가 ‘생협이사장’이 아니라 ‘재단이사장’이라는 점은 고용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협이 독립된 법인단체로 변모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내외적인 공신력 강화와 생협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법에서 권장하는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와 숭실대의 경우 이미 독립법인이 되었으며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은 학교 재단 측과 논의 중에 있다.



본고 또한 오는 24일 생협이사장, 학교 관계자, 학생측대표, 교직원대표 등이 모여 ‘운영자문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생협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지난 3월 독립법인이 된 숭실대 생협의 한선우 사무국원은 “독립법인화된 이후 법인단체로서 납세 의무를 지는 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며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생협이 운영됨에 따라 학내 복지향상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고 한다.

독립법인화된 생협은 ‘복지’라는 개념

2000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공고

1. 개설대상 교과목
2000학년도 1,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및 계절학기 전과목(가상강좌 및 실험실습 교과목은 제외)
2. 수업일정
가. 2000. 6. 22(목) ~ 2000. 7. 13(목), 16일간
나. 토요일, 공휴일 제외(산사의생활, 수영 등의 수업은 별도 지정)
3. 강좌개설 기준인원 : 전공 및 교직과목은 7명, 교양과목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강좌가 개설됨.
4.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 2000학년도 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6학점 이내에서 신청가능함.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생 선발 및 학사장계통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6. 수강신청 및 접수
가. 기간 : 2000. 5. 22(월)~5. 24(수) 3일간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서울캠퍼스 : 교무처 학사지원실(아간 대학생은 야간강좌 교화처)
(2)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실
다. 제출서류 : 계절학기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라. 수강료
(1) 개설 교과목 1학점당 65,000원 (예 : 3학점 과목 신청시 195,000원)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비부담.
7.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발표 : 2000. 5. 29(월).
8. 수강신청 정정기간
가. 기간 : 2000. 5. 29(월) ~ 5.30(화), 2일간
나. 제한 : 최초 수강신청후 폐강, 시간증복의 사유 발생시에만 가능

시간	번호	구분	과목	학점	비고
오전 9:30부터 12:20까지	1	EGC153	요가와 지인탐구	3	
	2	EGC201	한국문학의 이해	3	
	3	EGC309	매스컴과 사회	3	
	4	EGC313	광고학입문	3	
	5	EGC457	과학기술사	3	
	6	EGC502	현대영어특해	3	
	7	EGC506	기초일본어	3	
오후 13:00부터 15:50까지	1	EGC207	한국사이해	3	
	2	EGC304	경영학입문	3	
	3	EGC401	일반수학1	3	
	4	EGC413	생물학개론	3	
	5	EGC503	초급영어회화	3	
	6	EGC514	초급한문	3	
	7	EGC551	시사영어	3	
별도 지정일	1	EGC157	산사의 생활	1	*수업일지 별도지정
	2	EGC885	수영	1	*수강료의 부대 경비
	3	EGC887	골프	1	는 수강자 자비 부담

* 상기 교과목은 개설 예정교과목이며, 티교과목도 신청이 가능함. 다만, 강좌 개설 여부는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확정하니 유의바람.

교 무 처

개교 94주년 기념 출판부 도서 할인판매

새천년 첫 축제를 맞이하여 본고 출판부에서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다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발행 도서를 정가 대비 50% 특별 할인 가격으로 한정 판매합니다.

도 서 명	정 가	수량	도 서 명	정 가	수량
1 학교연극	3,800	20	21 문학과 교양	8,000	100
2 한국불교사상사연구	7,500	20	22 불교개론	8,000	20
3 평안방언연구	7,000	20	23 불교문화사	5,000	20
4 소장명품백선	8,000	100	24 철학개론	4,000	20
5 조선전기불교사상연구	8,500	20	25 연구논문작성법	2,500	20
6 한국연극사	12,000	20	26 한국과학사상사연구	10,000	20
7 전쟁과 국가	4,000	20	27 노예의길	8,000	20
8 한국불교시문학론	5,000	20	28 재무회계연습(문제편)	9,000	100
9 불교와 제과학	30,000	100	29 재무회계연습(해답편)	17,000	100
10 영역한국불교사상	4,500	20	30 광개토태왕석조기탁본집성	70,000	100
11 한국경제의지론	3,000	20	31 양주동전집 1차본(1-5책)	102,000	10질
12 국어학 논고	5,500	20	32 양주동전집 2차본(6-12책)	218,000	10질
13 중국과거제도의 사회사적연구	6,000	20	33 영미시결작선	12,000	20
14 칸트대 비트겐슈타인	6,000	20	34 미국초월주의 3인선	15,000	20
15 현대인권론(상,하)	22,800	20	35 T.S.엘리엇 문학비평	15,000	20
16 회합비극론	3,500	20	36 포스트모더니즘대의문학의위기	18,000	20
17 신라연구논저목록	8,000	20	37 광안의 변	20,000	20
18 원시한.일어연구	6,000	20	38 실락원.장사삼손	17,000	20
19 고전시가의 실증적연구	12,000	20	39 불교와도가사상	12,000	20
20 한국시장경제사	12,000	20	40 숨어있는 황금의 꽃	11,000	20

■ 기 간 : 2000. 5. 22~24(3일간)

■ 장 소 : 다화관 앞

출 판 부

방송인·산악인 선배와의 만남

학생들의 전문 직업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동대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동문 선배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강연자
O산악인 이인정(상학과 64학번, 대학산악인협회장)
O방송인 황 현(영어영문학과 79학번, MBC보도국 경제부차장)
2. 일시 및 장소: 5월 25일(목) 오후 2시~5시 문화관 덕담세미나홀
3. 강연 내용
O방송인·산악인으로 산다는 것은?
O방송인·산악인이 보는 직업의 의미와 특성
O방송인·산악인의 사회에서의 역할
O직업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태도, 능력, 생활습관 등
O사회진출을 앞둔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O선배들의 대학생활 등

학 생 상 담 실

증 권 강 좌

1. 취지 및 목적 : 증권시장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증권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증권전문인력 배양 등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2. 강좌개요
O일 시 : 2000.5.26(금), 14:00~17:00(3시간)
O장 소 : 학림관 소강당
O주 최 : 한국증권협회·매일경제신문
O주 관 : 취업준비팀·졸업준비위원회
3. 강좌내용 및 강사
O최근 증시의 이해와 향후 전망 - 김경신(대우증권 증권이사)
O증권전문인력의 세계와 그 도전 - 이재형(현대증권이사)

취업준비팀·졸업준비위원회

동약로

2% 돌려받기



“오를 통장으로 우리가 낸 등록금 중 일부를 환불해 준대. 지금 통장 확인해 보자.”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을 건네며 현금 인출기 앞에 선다.

지난 17일 경주캠프 은행 앞에서 등록금을 환불받으려는 학생들이 북비 시장 터를 연상케 했다. 학생증을 넣기도 전에 한 학생은 옆 친구에게 부러부러 액수를 물어보는 모습도 눈에 띈다.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얼만큼 이 액수를 되돌려 받기 위해 그 동안 투쟁한 거였어?” 금액을 환불받은 한 학생은 그 동안 학교측과 수 차례 벌어진 협의의 결과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는 듯한 표정이다.

학생회관 입구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는 몇몇의 무리들은 친구들과 등록금 환불에 관한 이력저런 얘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다.

“그럼 우리는 지금 돌려 받은 이 액수 전부로 만족 해야하는 거야?”

지난주에 있었던 등록금 차액 분의 반환으로 며칠 동안 등록금에 관한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주된 화제로 올랐다.

13%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된 후 일부 학생들은 학교측과의 협의를 위해 낯을 가리지 않았다. 납부연기, 점거능성 등 학기 초 활발하게 진행된 투쟁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고,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 협의로 등록금 11%인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학내복지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학교로부터 이끌어냈다. 경주캠프 본관건립, 기숙사 증축 등 학내복지 발전에 대한 약속은 그나마 우리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학생들은 그들 주머니로 들어오는 몇 푼의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학생들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등록금을 둘러싼 힘겨운 줄다리기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학내복지 향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등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소라 기자 choya@dongguk.ac.kr

월간 '말' 임종진 기자 감다희

“북한의 일상을 영상에 담고 싶었어요”

남·북 정서 통일 위해 민간교류 활성화 해야

편지자 주

본사에서는 창간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방북취재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도 적고 다녀왔다고 해도 취재 범위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현재 ‘북한이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 5월 17일에는 9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방북취재를 다녀온 월간 '말'의 임종진 사진기자와 함께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방북취재의 방향을 어디다 두었는가. = 사진기자가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북한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자 했다. 언론보도에서 늘 접해왔던 북한의 어려운 경제와 체제유지의 경직성 등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대동강변의 데이트하는 연인이나 만경대 유희장에서 마냥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전하고 싶었다.

- 취재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매항리 미군 폭격 현장을 찾아

포탄조각으로 살 수 없는 마을

부상자 속출·농가 피해 등 막심 ... 피해 대책위 활동 주목돼

지난 8일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에서는 또 한번의 사고가 있었다. '쿠니'사격장이라고 불리는 이 일대 미군의 사격 훈련장에서 폭격훈련을 하던 A-10기 한 대가 엔진에 이상을 일으켜 기체의 무게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예고없이 6발의 포탄을 한꺼번에 투하한 것이다. 그 충격의 여파로 매항리 일대 7백 여채의 주택은 균열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

게 되었다. 이날 사고로 여러 명의 부상자까지 속출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민들 대부분이 미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사격훈련이 없다는 주말을 택해 기자일행은 매항리를 찾았다. 매항리의 첫인상은 일반 시골 동네 어귀의 풍경과 별로 다를 게 없다. 하지만 감상도 잠깐, 조금을 거슬러 올라가니 흥물스

었다”는 일부 모습을 전하는 것뿐이다.

- 남북정상회담 발표 때 방북 중이었는데 그날 평양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 전체 인민이 모든 생산라인을 멈추고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중대뉴스를 듣는 모습을 보았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정상회담 발표에 다들 흥분된 모습이었다. 거리에서 만나보았던 평양 시민들은 통일이 가까이 왔다고 좋아했다.

- 방북 취재를 다녀와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 사람들은 보통 나의 북한사진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색다른 모습이라는 평이고,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북한이 제공하는 모습만 담았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북에 대한 왜곡된 언론보도나 한정적인 이북 관련자료,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져왔던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반쪽 '북녘'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다. 통일이란 남북이 정서적 통일을 이룰 때에만 진정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91년 전대기려 방북취재단 판문점 실무회담

역사적인 상봉 뒤 하루만에 불허

언론편파 보도 본래 의도 왜곡하기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요즘, 이미 91년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남북학생들이 만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88년 이후 지속되어온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대학신문기자들의 만남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당시의 공안정국 분위기에서 만남은 고사하고 어떤 식의 접촉조차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해됐던 시기에 남북학생들의 만남이 정부의 승인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만남이 이루어졌던 해가 91년이지만 불과 2년 전 한겨레신문사가 방북취재를 기획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논설교원이었던 리영희 교수가 구속되고 신문사 편집국이 수색을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사실, 당시 대학신문 기자 방북취재를 기획했던 입장에서 이러한 정황들로 성사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적어도 학생기자로서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의 개선에 보탬을 주고 학생들의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남북 대학생의 첫 만남이 현실로 다가왔다. 방북취재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 날짜까지 북한에서 응답이 없자 방북취재 공기를 해체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에서 중앙방송을 통해 대학생들의 방북취재를 환영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91년 8월 12일 대학신문 방북취재를 협의하기 위한 판문점 예비접촉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헤어졌던 혈육과 상봉하듯 서로 열싸인으며 눈물 흘렸고, 유량이 다른 지역의 소들보다 눈에 띄게 적다. 요즘은 대부분 발농사·농농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로 뿔지 모르는 포탄 조각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포탄이 우리 눈으로 떨어지면 일년 농사는 다 끝장난 것 아닌가

이것 저것 다 해보았지만 결국 손해만 보았다는 한 주민의 뉘그러가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 일행은 이어 미군의 폭격연습에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는 농성을 향해 이동했다. 원래는 봉우리 모양이었던 섬 모습이 이제는 미군의 계속된 폭격연습으로 반이 넘게 떨어져나가 흥물스런 상태로 남아있었다. 섬에 다다르자 성인 남자 키보다 훨씬 커보이는 탄피들이 즐

김기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비하게 널려 있었다. 또 표적으로 보이는 몇 대의 자동차와 드럼통들이 계속된 폭격으로 종이장처럼 너털너털해져 있었는데, 이를 보면서 섬뜩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러한 매항리 미군 폭격연습 피해에 대해 '주민피해대책추진위원회'의 전만규 위원장은 “나는 반미투사도 혁명투사도 아니다. 그래도 10년이 넘게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군 폐해가 크고, 그로인한 우리들의 고통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내 자식이 또 다시 이런 세상에 살게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한탄한다.

사회부

동국대학교 2000학년도 후기(야간)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 불교대학원(야간) ☎2260-3037~8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0명), 연구과정(약정)

2. 모집대상 및 전공

학과	전공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불교사상학과	불교사, 예불사
불교사외부학과	사외부사상, 교과학
장제문화학과	장제문화

3.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00년 6월 졸업예정자(이수예정자) 지원 가능

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다. 교육부장관이 통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 자

4. 원서접수 및 접수: 2000년 6월 1일(목)~6월 9일(금), 09:30부터 17: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5. 전형일시 및 장소: 2000년 6월 19일(토) 14:00, 불교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함

6. 전형방법

가. 석사학위과정

1) 일반전형: 필기시험(영어·한국어) 및 면접고사

2) 특례전형: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공공기관 또는 사회 각계 지도교 인시 우대)

나. 연구과정: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선심)

7. 특 전

가. 장학금: 2000년 6월 29일(목) 예(원)계정통입

8. 특 전

가. 재학생: 학내외 장학금, 국내외 장학금, 사회봉사기공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

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재학생,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부처 기관 임직, 사회과학계, 불교관련인, 불교계 사회봉사자 등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사회봉사: 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봉사 1급자격을 취득하면, 사회봉사 1급 국가기관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불교지도자과정

1. 수료과정: 석사과정의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수강

2. 모집인원: 0명

3. 지원자격: 조계종 대승 사승을 이수한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봉단체의 대표와 간부, 신심 이 특화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4. 전형방법: 서류심사와 면접

5. 원서접수 및 접수: 2000년 6월 19일(토) ~ 6월 29일(금) 09:30부터 17:00까지

6. 전형일시 및 장소: 2000년 6월 19일(토) 14:00, 불교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함

7. 전형방법: 2000년 6월 29일(목) 예(원)계정통입

8. 특 전

가. 해외연수, 국내외 장학금, 사회봉사기공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

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재학생,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부처 기관 임직, 사회과학계, 불교관련인, 불교계 사회봉사자 등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조계종 부설 의료원, 한방병원 이의시 할인 혜택

■ 행정대학원(야간) ☎2260-3102~3

1. 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2. 모집인원: 0명 (국·군재우에 따른 정원의 위약금 별도)

3. 학과 및 전공 (석사과정 2개 전공)

■ 경영대학원(야간) ☎2260-3036~7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0명), 연구과정(약정)

2. 모집대상 및 전공

학과	전공
경영학과	조직·인사관리, 생산·품질관리, 마케팅, 재무·증권금융, 국제경영
회계학과	회계학, 세무학
경제학과	경제학
무역학과	무역학
경영철학과	경영철학
부동산학과	부동산
산업·공공경영학과	산업·공공경영
서비스경영학과	관광경영, 유통서비스, 공급관리

3.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교육부장관이 통용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원서접수 및 접수: 2000년 6월 19일(토)~6월 29일(금) 09:30부터 17:00까지

5. 전형일시 및 장소: 2000년 6월 29일(목) 14:00, 본 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함

6.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7. 특 전

가. 재학생: 학내외 장학금, 국내외 장학금, 사회봉사기공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

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재학생,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부처 기관 임직, 사회과학계, 불교관련인, 불교계 사회봉사자 등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조계종 부설 의료원, 한방병원 이의시 할인 혜택

■ 경영정보대학원(야간) ☎2260-3036~7

1. 모집과정 및 전공

학과	전공
경영학과	조직·인사관리, 생산·품질관리, 마케팅, 재무·증권금융, 국제경영
회계학과	회계학, 세무학
경제학과	경제학
무역학과	무역학
경영철학과	경영철학
부동산학과	부동산
산업·공공경영학과	산업·공공경영
서비스경영학과	관광경영, 유통서비스, 공급관리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교육부장관이 통용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원서접수 및 접수: 2000년 6월 19일(토)~6월 29일(금) 09:30부터 17:00까지

4. 전형일시 및 장소: 2000년 6월 29일(목) 14:00, 본 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함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6. 특 전

가. 재학생: 학내외 장학금, 국내외 장학금, 사회봉사기공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

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재학생,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부처 기관 임직, 사회과학계, 불교관련인, 불교계 사회봉사자 등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조계종 부설 의료원, 한방병원 이의시 할인 혜택

■ 언론정보대학원(신입생·편입생)(야간) ☎2260-3722~3

1. 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2. 모집인원: 0명

3. 학과 및 전공

학과	전공
언론학과	언론학, 언론사론, 언론사법, 언론사조직, 언론사경영, 언론사윤리, 언론사역사
언론사외부학과	언론사외부사상, 언론사외부사법, 언론사외부사정, 언론사외부사행, 언론사외부사학
언론사외부학과	언론사외부사상, 언론사외부사법, 언론사외부사정, 언론사외부사행, 언론사외부사학

4.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00년 6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교육부장관이 통용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원서접수 및 접수: 2000년 6월 19일(토)~6월 29일(금) 09:30부터 17:00까지

6. 전형일시 및 장소: 2000년 6월 29일(목) 14:00, 본 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함

7.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8. 특 전

가. 재학생: 학내외 장학금, 국내외 장학금, 사회봉사기공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

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재학생,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부처 기관 임직, 사회과학계, 불교관련인, 불교계 사회봉사자 등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조계종 부설 의료원, 한방병원 이의시 할인 혜택

■ 언론정보대학원(신입생·편입생)(야간) ☎2260-3722~3

1. 모집과정 및 전공

학과	전공
언론학과	언론학, 언론사론, 언론사법, 언론사조직, 언론사경영, 언론사윤리, 언론사역사
언론사외부학과	언론사외부사상, 언론사외부사법, 언론사외부사정, 언론사외부사행, 언론사외부사학
언론사외부학과	언론사외부사상, 언론사외부사법, 언론사외부사정, 언론사외부사행, 언론사외부사학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00년 6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교육부장관이 통용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원서접수 및 접수: 2000년 6월 19일(토)~6월 29일(금) 09:30부터 17:00까지

4. 전형일시 및 장소: 2000년 6월 29일(목) 14:00, 본 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함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6. 특 전

가. 재학생: 학내외 장학금, 국내외 장학금, 사회봉사기공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

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재학생,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부처 기관 임직, 사회과학계, 불교관련인, 불교계 사회봉사자 등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조계종 부설 의료원, 한방병원 이의시 할인 혜택

■ 최교신경영정보대학원(야간) ☎2260-3602~3

1. 모집과정 및 전공

학과	전공
경영학과	조직·인사관리, 생산·품질관리, 마케팅, 재무·증권금융, 국제경영
회계학과	회계학, 세무학
경제학과	경제학
무역학과	무역학
경영철학과	경영철학
부동산학과	부동산
산업·공공경영학과	산업·공공경영
서비스경영학과	관광경영, 유통서비스, 공급관리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교육부장관이 통용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원서접수 및 접수: 2000년 6월 19일(토)~6월 29일(금) 09:30부터 17:00까지

4. 전형일시 및 장소: 2000년 6월 29일(목) 14:00, 본 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함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6. 특 전

가. 재학생: 학내외 장학금, 국내외 장학금, 사회봉사기공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

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재학생,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부처 기관 임직, 사회과학계, 불교관련인, 불교계 사회봉사자 등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조계종 부설 의료원, 한방병원 이의시 할인 혜택

■ 문학예술대학원(신입생·편입생)(야간) ☎2260-3606~7

1. 모집과정 및 전공

학과	전공
문학학과	문학사론, 문학사상, 문학사조, 문학비평, 문학연구, 문학사조, 문학사상, 문학사조, 문학비평, 문학연구
미술학과	미술사론, 미술사상, 미술사조, 미술비평, 미술연구, 미술사조, 미술사상, 미술사조, 미술비평, 미술연구
음악학과	음악사론, 음악사상, 음악사조, 음악비평, 음악연구, 음악사조, 음악사상, 음악사조, 음악비평, 음악연구
영화학과	영화사론, 영화사상, 영화사조, 영화비평, 영화연구, 영화사조, 영화사상, 영화사조, 영화비평, 영화연구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교육부장관이 통용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원서접수 및 접수: 2000년 6월 19일(토)~6월 29일(금) 09:30부터 17:00까지

4. 전형일시 및 장소: 2000년 6월 29일(목) 14:00, 본 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함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6. 특 전

가. 재학생: 학내외 장학금, 국내외 장학금, 사회봉사기공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

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재학생,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부처 기관 임직, 사회과학계, 불교관련인, 불교계 사회봉사자 등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조계종 부설 의료원, 한방병원 이의시 할인 혜택

■ 문학예술대학원(신입생·편입생)(야간) ☎2260-3606~7

1. 모집과정 및 전공

학과	전공
문학학과	문학사론, 문학사상, 문학사조, 문학비평, 문학연구, 문학사조, 문학사상, 문학사조, 문학비평, 문학연구
미술학과	미술사론, 미술사상, 미술사조, 미술비평, 미술연구, 미술사조, 미술사상, 미술사조, 미술비평, 미술연구
음악학과	음악사론, 음악사상, 음악사조, 음악비평, 음악연구, 음악사조, 음악사상, 음악사조, 음악비평, 음악연구
영화학과	영화사론, 영화사상, 영화사조, 영화비평, 영화연구, 영화사조, 영화사상, 영화사조, 영화비평, 영화연구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나.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교육부장관이 통용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원서접수 및 접수: 2000년 6월 19일(토)~6월 29일(금) 09:30부터 17:00까지

4. 전형일시 및 장소: 2000년 6월 29일(목) 14:00, 본 대학원 교학부 별도 게시함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6. 특 전

가. 재학생: 학내외 장학금, 국내외 장학금, 사회봉사기공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함

나. 조계종 및 한국불교총연합회 소속 종단 재학생, 조계종 중추원, 공무원, 정부부처 기관 임직, 사회과학계, 불교관련인, 불교계 사회봉사자 등 종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 조계종 부설 의료원, 한방병원 이의시 할인 혜택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습과 인격을 연마하고 인류사회 및 자연의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증진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합니다.

학생과 함께하는 '벤처'로

창업의지 고취·산학협동의 산실역할 기대

본교 창업보육센터·인터넷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16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동국관 창업보육센터에서 송석구 총장, 김동일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석구 총장은 치사를 통해 "벤처사업은 양적성장으로만 치우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며 "본교의 창업보육센터는 공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타대학과는 달리 경영대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마케팅 부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만큼 보다 창의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기술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벤처 창업 경연대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팀이 사업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벤처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교 창업지원단(단장=이종욱·정보관리학과)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벤처주간을 선포하고 벤처창업경연대회와 벤처특강을 실시했다.

벤처창업경연대회는 지난 18일 사업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신재호(전자공학)교수를 비롯한 4명의 심사위원은 특별상을 포함 최종 5팀을 선정했다.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상=J.TECH의 노래방서치리모콘과 거울 기능 LCD △우수상=허육(기계공4)군의 문학 사이트 △가작=장제혁(반도체과학4)군의 격투대전 게임과 유세중(토목환경4)군의 형상변형 종이완구 △특별상=해어코디팀의 헤어 사이트가 선정됐다.

이에 내일(23일) 교무위원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며 수상자는 △대상=300만원 △우수상=200만원 △가작=1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입주해있

는 대상 수상자를 제외한 수상자 전원에게 소호에 입주할 기회가 부여된다.

벤처주간은 일련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 벤처특강에서는 △'벤처창업과 코스닥'을 주제로 양재·포이 벤처지원센터 최정현(입 87졸)소장 △'벤처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의 오혁(일문 89졸)사장 △'정부의 벤처지원 정책'을 주제로 서울중소기업청의 천상만 과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벤처주간 행사를 "동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벤처 의지를 함양시키며 미처 발휘 못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이종욱 창업지원 단장은 평가한다. 또한 그는 "앞으로 벤처주간행사를 매년 벌이는 등 다양한 행사마련으로 '학생과 함께하는 벤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현중 기자
rocket123@dgu.ac.kr

벤처창업경연대회 심사평

참신한 아이디어·기술 부족 아쉬워

창업지원단이 주최한 제1회 동국 벤처창업경연대회는 18개의 팀이 응모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8팀에 대하여 지난 18일 오후에 3시간여에 걸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중 4팀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1팀의 등의 특별상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창업지원단에서 총 7백만원의 상금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가지고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한 목적은 동국인에게 벤처창업에 대한 실험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즉, 학부 재학생에게 벤처 기업을 창업할 만한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각 전공분야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한 대학생만이 갖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모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적인 인터넷 관련이거나 또는 차별화된 기술을 동반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차별화된 기술을 동반하지 않은 벤처는 언제나 추월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벤처경연대회는 제안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모형(prototype)을 제시하면 된다는 것을 재학생들은 기억하고 내년 제2회에는 이러한 참가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듯, 평자의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을 믿는다.

대상을 수상한 정재준(기계공 4)의 노래방용 서치 리모콘은 우리들이 흔히 이용하는 노래방에서 사용자가 노래책과 리모콘을 따로 사용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을 통합 해결 하였다. 노래책이 단순 검색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컴퓨터화된 리모콘에 다양한 검색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우수상을 수상한 허육의 작품은 제안자가 경험을 살려 문학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모의 주식 투자 게임과 결합하여 약화되어 가는 문학을 중흥하고자 하는 점을 평가하였다. 가작으로 선정된 유세중 군의 형상변형 종이완구는 고가의 일반 형상변형완구를 2D형태의 종이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격을 20분의 1로 줄여 유아 및 어린이에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평가하였다. 장제혁 군은 댄싱머신인 DDR과 컴퓨터 게임을 복합화한 Active 게임기 아이디어를 평가하였다.

신재호 교수
공과대 전자공학

인터뷰- 벤처창업 경연대회 대상

“대학생 창업의 표본이 되고 싶다”



벤처주간을 맞아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최된 제 1회 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자 정재준(기계공4)·이성민(산업공4)군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수상소감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다. 창업동아리 Frontier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후배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준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다.

-입상한 제품에 대해.
=노래방용 서치 리모콘과 거울 기능 LCD 두 제품이다. 노래방용 서치 리모콘은 노래방에 갔을때 책을 찾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해보려는 아이템이고, 거울기능 LCD는 손거울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했다. 노래방용 서치 리모콘은 특허출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년 6월 안으로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학교에 비한다면.
=벤처주간이나 창업경연대회가 일회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 지원으로 벤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들의 기술력, 자본 축적등에 기여해 줬으면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까지 학생 신분이라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는걸 느낀다. 하지만 학생의 능력 범위안에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차근차근 노력해 갈 생각이다. 단순한 실험이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기업화에 성공해 대학생 창업의 표본이 되고 싶다.

최은진 기자
maenadsz@dreamwiz.com

인터뷰- 옥션 오혁 (일문과 89졸) 사장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져라”

지난 16일 '벤처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 옥션(일문 89졸)사장을 만나 옥션의 운영 방법과 벤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옥션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옥션은 국내에 인터넷 경매제도를 보급한 선발주자로서 85만명의 회원들

가지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수익모델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온라인 경매업체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국내에 1백여개가 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들이 개설되고 있지만, 옥션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매매보호장치로 인터넷 경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운영은
=지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의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옥션은 국내 인터넷 경매제도의 정착화와 그에 따른 신기술 확보를 위해 아직도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시장에서 수익모델이 확실하지 않은 지금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은 아직도 모험일 수밖에 없다.

-대학 내의 벤처창업 열풍을 어떻게 보는가?
=대학이 벤처 기업의 산과역할을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

을 것이다. 실험실과 강단을 댄들던 독특한 창의력, 아이디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결합된 아이템들은 강력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대학 본연의 연구, 학술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벤처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은
=벤처기업이 순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속적인 기술과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에서 쌓은 기본이 중요하다. 자기 전



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것들을 충분히 익힌 후,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부

창업경연대회 입상작

대상

노래방용 서치 리모콘/거울 기능 LCD

J-TECH 정재준(기계공4), 이성민(산업공4) 공동 출품. 입상작은 노래방 서치 리모콘과 거울 기능 LCD로서 노래방용 서치 리모콘은 노래방기 이용면의 불편함을 보완했으며, 거울 기능 LCD는 기존의 LCD에 거울기능을 첨가한 아이템이다.

노래방용 서치 리모콘의 경우 국내외에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허 출원도 J-TECH이 최초로 등록되어 있어 기업화에 성공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수상

문학

모든 문학 연관 사업을 통합하고 문학에 사업성의 개념을 도입, 작가와 네티즌을 주주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주식매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이버 작가와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작가 및 평론가들로부터 평론과 문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문학의 대중화를 꾀하고자 한다. 기존 Off-Line공간에서의 출판 방식과 On-Line 공간을 통합·접목하여 시장의 폭을 보다 넓히고 있다. 나아가 시 낭독 음반 사업과 시나리오를 통한 영화사업에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한다.

가작

형상변형 종이완구

기존의 모든 형태의 완구를 2D형태로 바꿔 관찰과 변형부분을 재현하는 기술은 적은 비용으로 표현의 범위가 넓어져 완구업계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과 조립이 쉽다는 장점 이외에도 각 부품의 회동, 삽탈, 절곡을 통하여 비행물체와 로봇간의 형상 변형이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종이 완구이면서도 상하좌우로 자유로운 회전 운동이 가능하며 제작의 용이와 조립의 편의성까지 더해 재미를 유발시키고 싫증을 줄이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이다.

Active 게임기

손과 발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조이스틱을 얹어 온몸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게임방식을 구현한다. 센서와 인형을 부가해 동적이고 다양한 게임을 가능하게 했다.

매년 게임인구가 10~20%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사용자 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전망이 무척 밝다.

등외 특별상

헤어 코디(<http://www.haircody.com>)

헤어스타일을 웹상에서 바뀌보는 사이트. 가입한 회원들에게 두상 퓌타주를 작성케하고 여러 가지 헤어 스타일과 헤어 컬러, 관련 아이템들을 제공한다. 3D토포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감과 실제감 있는 영상을 제공하며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로 접근성을 높였다.

최은진 기자
maenadsz@dreamwiz.com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금요일마다 대학로 한귀퉁이 문예진흥원은 문학에 대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금요일의 문학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강좌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속에 열기를 뽐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소설가 김원일씨의 '어떤 사람들이 문학을 할까'를 시작으로 '금요일의 문학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회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9일 문예진흥원에서는 '나의 문학 세계'라는 주제로 소설가 신경숙씨의 강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연장과 복도를 가득 메우고도 모자라 출입구에서라도 강연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신경숙씨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놓칠까 진지한 모습이었다. 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강연장 안은 신경숙씨의 열변과 사람들의 열정으로 오히려 덥기까지 했다.

처음으로 자기이름을 단 책이 나왔다는 소식에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출판사까지 뛰어갔다는 이야기부터 신간 '딸기밭'에 관한 내용소개까지 신경숙씨의 문학이야기는 그의 문체만큼이나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풀어내는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금요일의 문학이야기'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참석자와 강사 사이에 열려있는 공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강좌여서 부담이 없고, 강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다음주 강연을 찾았을 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예진흥원의 배려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명강의는 스스로 찾는 사람들이 있기에 홍보없이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문학에 대한 열정과 작가에 대한 호감만으로도 이 같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역시 그들의 입과 귀를 통해 전해지고 계속될 것이다.

5월 26일	신경림	나의 시의 역정
6월 2일	이강백	한국연극을 재미있게 보는 방법
6월 9일	이문열	문학과 시대
6월 16일	정호승	우리는 왜 시를 사랑하는가
6월 23일	한수산	한일 문화 비교
6월 30일	조세희	난장이가 산 세상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제5의 계절, 대동제를 위하여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대학교 축제는 '백상연(白象宴)'이라 했다. 생생파티로 대표되던 당시의 대학축제는 말 그대로 '일탈의 공간'이었다. 그 후 80년대에 와서 '대동제(大同祭)'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동제는 학생운동이 치열하던 80년대 고려대학교의 '석탑대동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그 출발부터가 매우 정치적이었던 바, 시대의식을 실현하고, 단결투쟁을 위한 정치적 동질화의 장으로 역할했다. 그 이후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 전반의 반권위주의적인 개방화로 90년대의 대동제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 의식을 잃어 가고, 자연스럽게 '문화제'의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그러자 놀이행사를 주로하는 문화축제를 '대동'이라 이름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기 시작했다. 대학

의 독창성을 잃어가고 교문 밖의 상업주의가 그대로 재현된다는 비판과 함께, 80년대의 대동제가 보여준 전투적이고, 획일적인 대학생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양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시각은 대학이 대학만의 고유한 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업주의를 소비하는 문화의 소비시장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좋다(anything goes)! 권위주의의 저항과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이라는 대학 축제의 사명이 꼭 80년대 식으로 수행될 필요는 없다. 6~70년대 식, 80년대 식이 대학문화의 전형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즐기는 각자 즐기는 존재구속으로부터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친화할 수 있을 때만

달하나 천강에

다양성이 인정된다. 나는 최근의 대동제에서 공약 불가능한 관심들이 상충하는 번잡한 놀이터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대동제는 분명 학생들의 축제이지만, 캠퍼스에는 그들 말고도 교수와 직원이 있다. 학생들만 해방되고, 교수님들은 여전히 일상의 억압에 놓여 있어도 좋단 말인가? 교수들도 놀고 싶다! 대동의 의미를 되살려 '대동제의 왕따'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을 참여시키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당당하게 휴강하게끔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축제 이전엔 억압도 없었듯이, 축제는 일상의 억압을 잠재한다. 일탈과 해방은 축제 이후의 또 다른 일상을 얻기 위함이다. 독일인들은 축제를 '제5의 계절'이라 부른다. 일년 내내 돌아오지 않는 계절이 우리 앞에 있다. 참여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계절이다.



구승희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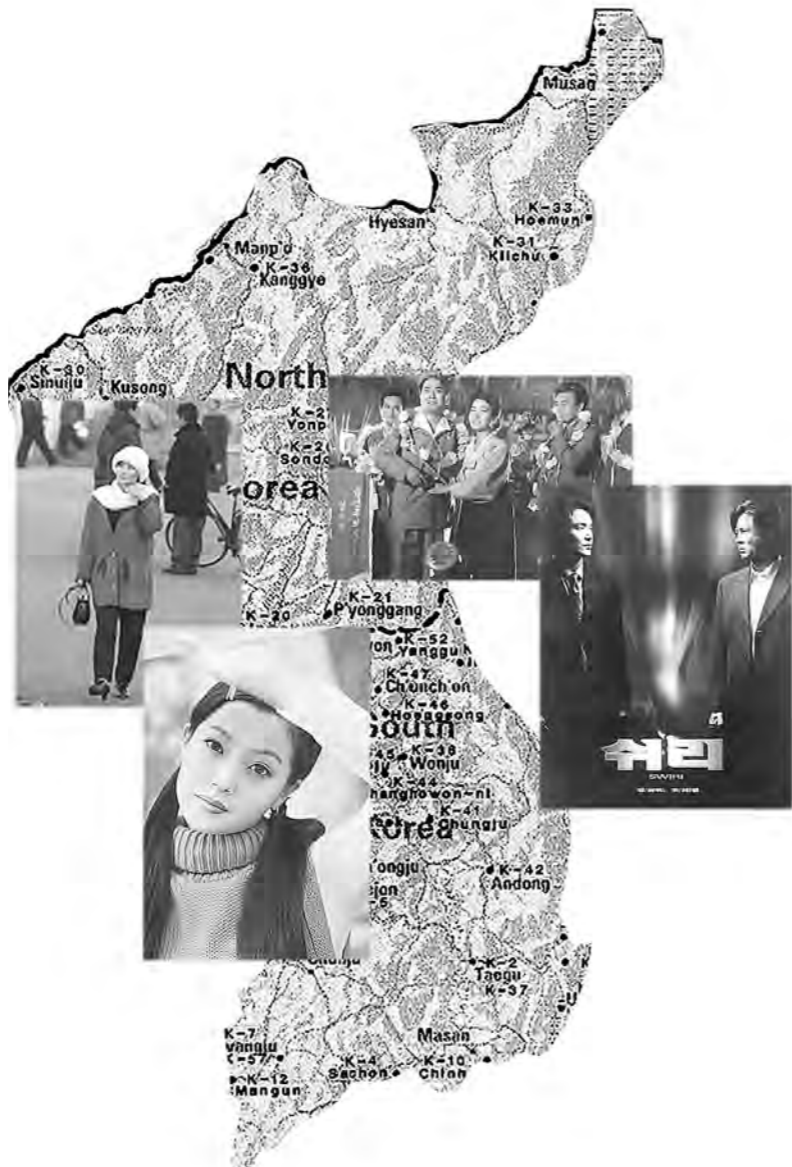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북한문화 바로 알기

1. 남·북한 대학문화 비교
2. 전반적인 남·북한 문화현상 진단
3. 남·북한 문화교류 사례

북한문화에 대한 정보가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북한 문화 바로알기

밀려드는 북한 정보의 물결

꾸준한 비교 검토로 균형적 시각 정립해야

오랜 분단상황 속에서 남북한은 이념적, 정치·군사적 상호적대관계, 사회·경제적 상호격리관계로 인해 서로에 대한 공포감과 적대심을 갖고 지내왔다. 1985년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고 1988년 남북당국간의 교류 추진의지가 표명된 이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듯 하였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다시 남북관계가 냉각되자 남북간 직접교류는 한동안 중단되게 되었다.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를 재개시키려는 노력들로 인해 중국·일본 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1998년 이후에는 예술·체육분야에서 남북간 직접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제한된 소수의 북한방문 혹은 일회적인 행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교류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다만 국내방송사들이 북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방영하고 정부가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북한의 서적, 신문, 영화 등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제한적이지만 북한을 간접적으로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최근들어 인터넷의 보급으로 우리는

더욱 쉽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은 어디서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 국정원 등 국내기관들 뿐만 아니라 해외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해 10월 10일 홍콩의 '법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 촉진협회'를 통해 조선인포털이라는 사이트(<http://www.dprkorea.com>)를 개설하였으며, 조선중앙통신도 일본의 조선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TV는 지난 해 7월부터 시험위성방송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은 북한관련 정보의 확대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북한 정보는 북한당국의 의도에 의해 제한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북한사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김정일총비서가 하루 두 시간 넘게 웹서핑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개발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으나, 북한은 인터넷 국가코드(kp)를 부여 받았으면서도 아직 도메인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극히 제한된 전문가들의 인터넷 정보검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될 뿐 북한내 상주하는 국제기구요원들에게도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인터넷에 관심이 있지만

인터넷망 개방을 통한 자유화 바람의 유인 가능성 때문에 고민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우리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관련물에 대한 기존의 편견(무조건적인 찬양 또는 비판)도 아직 크게 남아있다. 또한 더욱 주목할 것은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호기심도 이제는 많은 부분 무관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북한주민들이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길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만이라도 주어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북한사회를 바로 알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을 무조건 비판하는 냉전적 사고방식도 문제이지만, 북한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북한사회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료들을 나름대로 비교검토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매체비평

- TV 편

‘텔레비전 멋진 친구들’

“현실과 괴리된 시트콤은 살았으되 산 것이 아니다”



방송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시트콤 '멋진 친구들'

방송국이란 어떤 환타지를 가진 장소다. 수많은 스타들이 피고 지는 장소.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 사고가 터져 나오는 화려함과 치열함이 공존하는 꿈의 공장.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드라마에서는 방송국

을 것이다. 가혹하고도 가혹한 심정으로 만든다면 가장 가까운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리얼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걸테고 불순한 의도로 보자면 이른바 '쉽게 가져'의 안일

합일 테다. 하지만 그간 다루어 졌던 '방송국'의 형상은 과연 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일까? 하는 의문을 자아낼 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중 요점 가장 잘나간다는 3명의 개그맨을 내세워 또 하나의 '방송국'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KBS 2TV의 새 시트콤 '텔레비전 멋진 친구들'이다. 이 시트콤의 배경은 방송국이고 남희석, 이휘재, 유재석은 AD들이다. 그 외에도 박경림, 이나영 같이 구색맞는 여자 연기자들이 작가로 분하고 어디서나 웃음을 유발하는 감초 연기자 임현식이 극장으로 나온다. 이들은 아주 자주 아이디어 회의만 하고 대부분 수다를 떨며 가끔 촬영과 편집을 하는 '멋진 친구들'이다. 이곳은 방송국이 아니어도 혹은 대학동아리라도 전혀 무리가 없을 듯 보인다. 상여금 1백만원을 놓고 PD와 편먹듯 나누어진 작

가. PD들이 경합하듯 경쟁을 벌리는 예피소드 속에는 어느덧 방송 현장에서 땀 흘리는 스태프들의 모습과 방송국이란 공간은 온데간데 없다. 시트콤이라는 공간속의 리얼리티 구현은 출연자나 상황의 개연성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의 성공적 시트콤 사례라고 들 수 있는 '순풍 산부인과'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오지명이 의사답지 못하며 권오중이 방송작가답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는 캐릭터의 과장이나 상황의 부풀림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극속의 리얼리티를 버리지 않는 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시키는 힘에서 비롯된 것일게다. 이는 '순풍 산부인과'의 빛나는 캐릭터들이 '순풍'을 떠나서도 존재하는 인물설정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위해 오랜 기간을 거쳐 다듬어지고 완성된 캐릭터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멋진 친구들'의 남희석과 이휘재를 보며 '멋진 만

남'의 경쟁적 폼비상을 떠올리고 유재석을 보며 여타의 쇼 오락프로그램의 그의 잔상을 지우기 어렵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시트콤의 어떤 틀처럼 지켜져오는 '실명쓰기'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자신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한 배우들에게 집이고 굴레다. 남희석이라는 혹은 이휘재라는 혹은 유재석이라는 개그맨들이 있을뿐 어디에도 남PD 이PD 유PD는 없다.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닐까? 뼈를 깎는 캐릭터 창조와 고통에서 아니라 애드립이나 개인기로 무장된 연기자가 아닌 '스타'만이 유행처럼 떠도는 시트콤의 생명은 이미 살았으되 산 것이 아닐 것이다.

백은하
씨네21 객원기자

체 게바라, 시공을 뛰어넘어 되살아나다

이미지로 만든 영웅상 VS 치열한 삶 · 문제의식 가진 게릴라 혁명가

일생을 게릴라로 일관한 전설적인 혁명가 체 게바라가 되살아나고 있다. 67년 체포되어 처형당한 체 게바라가 30년만에 유럽을 강타하고 드디어 한국에까지 게바라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일생을 다룬 소설에서부터 평전, 게바라의 얼굴을 그려넣은 시계, 재킷, 티셔츠 등이 불타나듯 팔리며 게바라의 부활을 실감케 하고 있다. 96년 스위스의 한 신문에서는 유럽에서 불고 있는 '체 게바라' 열풍을 특집으로 다루며 '혁명'은 끝나고 공산주의도 몰락했는데 게바라만은 살아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3천부를 넘기 힘든 평전의 판매 부수가 한달만에 2만부를 넘기고 있고 체의 이름을 딴 카페까지 인기를 끌 정도이니 체 게바라가 시대를 역행하며 살아있는 셈이다. 하지만 체 게바라 열풍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배지를 달고 다니는 젊은이들은 혹시 낭만적 혁명가로서의 반항적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치열한

그의 삶과 문제 의식을 떠나 브로마이드 속의 반항적 이미지만을 좇는다면 게바라의 부활은 박물관의 미이라와 다를바 없다. 평전 속에 나타난 그의 삶과 문제 의식을 돌아보며 과연 21세기의 체 게바라가 살아남은 진정한 혁명가인지 환영에 지나지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게바라는 1928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의 로자리오에서 미숙아로 태어났다.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 세르나였으며 귀족 집안의 아버지와 군인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결국 그의 부모는 부르주아 계급인 셈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무신론자였고 자유주의적인 좌파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게바라가 두 살 때 천식에 걸려 고생을 한 이후 그의 가족은 모두 코르도바로 이사를 갔고 그의 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가르쳤다.

간장 때문에 어린 시절의 교육은 주로 집에서 이루어졌고, 일찍부터 아버지의 장서를 읽으며 맑스와 엥겔스의 열렬한 독자가 되어갔다. 특히 스페인 내전의 정치적 망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게바라는 '좌익 파시스트' 페론에 반대하였다. 이 사건들의 영향에 고취된 젊은 게바라는 민주적 의회와 군인정치가, 군대, 자본가의 독재, 미국자본, 제국주의 혐오에 관한 무언극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게바라는 의사로서의 꿈을 고수하며 부에노스 아이리스 대학의 의학부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시절 남미 각국을 일주한 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는 일기를 남기면서 급진적 혁명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가기 시작한다.

남미여행은 그에게 이국적인 경관과 그곳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대조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상파울로 나환자촌에서 '노동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유대감은 고통하고 절망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싹튼다'는 진실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한다. 게바라는 남미 도보여행을 통해서 그곳 민중들의 비참한 생활과 그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사회과학

적인 안목을 길렀고 인간해방에 기초한 인식의 토대를 쌓게 되었다. 훗날 그는 남미의 어느 땅에서도 자신은 이방인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술회할 정도로 남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는 안락한 의사에서 급진적인 변혁주의자로 변신하기 시작하는데 의사가 된 지 두 달 만에 그는 가운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된 볼리비아로 떠난다.

체(Che) 게바라가 되다

쿠바와 페델 카스트로의 동지들은 그를 체(Che)라고 불렀다. 체(Che)는 이태리어에서 기원한 단짝친구라는 뜻이다. 남미의 비참한 생활상과 쿠데타를 목격하면서 그는 점차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맑스-레닌에 관한 학습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가난하고 착취받는 나라의 혁명 정부는 미제국주의와 그에 결탁한 자본가들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의 파테탈라 침공을 목격하면서 게바라는 미국에 대한 철저한 증오심과 제국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대해 정면적, 실천적으로 대항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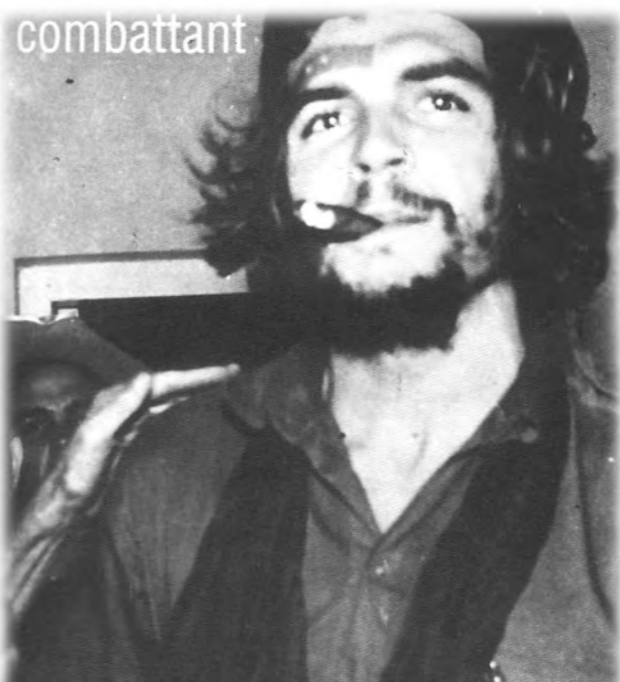
게바라와 멕시코에 있던 망명 쿠바인들은 철저하고 강도높은 훈련에 몰입했고 게바라는 냉철하고 공격적인 게릴라 지휘자로 다시 태어난다. 그는 레닌주의 교육을 철저했으며, 인정없는 엄격한 지휘자로 변절자들을 민첩하게 사살했고 그후 저항자 다수를 처형함으로써 잔인함의 악명을 얻었다.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일으킨 게바라는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쿠바의 2인자가 되었다. 체는 국영농장을 조직하고 감독했고 신토지법에 의해 거대 토지는 몰수하였다. 국립은행 총재가 되어 산업부문을 관리하는 일도 하였다. 하지만 쿠바의 경제는 급속도로 황폐화되어가기만 했다.

권력을 등지고 한길을 가다

그러던 중 1965년 돌연 자취를 감춘 게바라는 벨기에에서 독립한 후 내전에 휩싸인 콩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카스트로의 후원 아래 혁명 게릴라를 지휘하며 서방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용병에 맞섰지만 그의 인생을 갈라놓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66년 볼리비아 게릴라에 합류, 결국 체포되어 67년 12월 9일 처형된다.

이미지 VS 시대정신

게바라가 유럽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죽는 날까지 권력을 등진 체 게릴라로 일관한 전설적인 삶 때문이었다. 쿠바 혁명을 완성하는 순간 모든 권력과 특례를 버리고 다시 게릴라가 된 게바라에게서 영웅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체 게바라 열풍이 게바라의 시대정신과 치열함을



가난한 시골에서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 체

얼마나 담겨있고 있는지 우려된다.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지 않은 체 게바라의 브로마이드와 상품속의 이미지만을 좇는 것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을 기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게바라의 치열한 삶과 시대정신'이, 아니면 고통하고 우수에 젖은 게릴라의 이미지인가?
최은진 기자
maenads@dreamwiz.com



공포가 권력배후로 변신한 체 게바라

자유인식

학교 안에서

응원대제전

서울캠 백상응원단 주최로 전국대학 응원제전이 열린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응원제는 본교출신 개그맨 김영철과 샤크라, 코요테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오는 23일(화) 6시, 본교 수영장(장충포장)에서. 입장료 예매 2천 5백원, 당일 3천 원.

음샘 콘서트

서울캠 공대 Rock 소모임 음샘의 10번째 불 정기공연. 'Good Rock To You'라는 주제의 이번 콘서트에서 일상을 벗어나 Rock의 세계로 빠져보는 것도 즐거울 듯. 오는 26일(금) 6시, 본관 중앙당에서.

영화제

대통령 기간중 서울캠 예술대 학생회에서는 노컷 영화제를, 영화동아리 디담들에서는 자극영화제를 개최한다. 예술대 학생회는 무사제관의 노컷영화 3편을 선보인다. 22일(월), 23일(화) 오후 6시, 개교 90주년 기념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무료상영.

22일	스타일 트루퍼스
23일	레드헌트II/감각의 제국

디담들은 22일(월)과 23일(화) 각각 3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만해광장과 본관의 중앙당에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스윙로우테일'을 제외한 4편은 입장료 각각 1천원.

22일(월)	오전 12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오후 3시	
23일(화)	오후 6시	모두하고 있습니까
	오후 1시	시계태엽 오렌지
	오후 4시	테드 알라리브
	오후 8시	스윙로우테일

축제 사진 전시회

경주캠 영상사진 예술연구회에서 16번째 축제 사진전을 연다. 미지의 영상세계로 안내할 이번 전시에는 순수·풍경·인물 사진 40작품이 선보인다고. 그동안 멋진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해 왔던 영상인들의 결정체가 묻어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신입생들의 작품도 전시돼 더 큰 관심을 가져줄 듯. 오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서.

메아리

분서경유

▲중국어 진나라 시황이 중원을 통일한지 8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연회를 베풀며 회포를 풀던 중 이야기는 체제논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당시 진시황은 법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가의 이상인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실시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 때문에 유가세력들은 사사건건 진시황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었다. 이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진시황은 연

회에서의 논쟁을 빌미로 유가세력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며 반대세력을 잠재웠다. ▲지난 98년 민중 미술가 신학철 씨의 87년작 '모내기' 그림이 이적 표현물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작품은 모내기하는 농부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 콜라, 양담배 등을 바닷속으로 끌어 넣은 남쪽과 풍년을 경축하며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 북쪽을 대조적으로 표현

한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남한을 비하하며 북한을 찬양한 이적 표현물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버렸다. ▲이적 표현물 '모내기'가 불태워질지 모른다고 한다. 21세기 진시황의 부활을 목격할지도 모르겠다. 신학철 씨는 UN 인권이사회에 심리가 끝날때 까지 모내기 그림을 몰수해 보관하고 있는 검찰측에서 원본을 폐기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햇볕정

책으로 풀려가는 듯한 남북한의 이면은 아직도 겨울이고 밤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료와 소, 그리고 사람이 오가는 대북 정책과 여전히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창작자의 자유를 침해당해야 하는 이윤배반적인 현실의 공존이 안타깝다. ▲분서경유는 진시황을 폭군으로 만든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진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과 같은 이중적이고 역압적인 대북 정책은 진시황의 분서경유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일관되고 개방적인 자세로 북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통일도 한발짝씩 멀어져 갈 뿐이다. UN 인권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표현의 자유마저도 자주적이지 못한 현실이 다시 한 번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은진 문화부장

